



일파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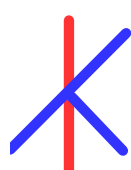
KT새노조 소식지 2015.5.9

www.humankt.org

VOL. 25



불안심리가 지배하는
KT 기업문화,
이대로 무너진다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KT새노조

독자투고&제안 | newnojo@naver.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사라지는 일자리, 주변 업무로 밀려나는 KT 정규직 노동자

일자리가 줄고 있다. 유선전화 서비스의 가장 기초인 개통, 고장수리 등 업무는 더 이상 KT 업무가 아니다. 콜센터, 프라자 등 고객접점 업무도 대부분 이미 KT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분사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둬들인 구조조정으로 KT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변화된 업무를 맡고 있다. 영업 일선의 직원들은 전산권한도 회수된 채 대리점의 조력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 때 잘 나가던 기술자들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현장업무지원단(CFT)에서 모뎀, 셋톱박스 등 임대단말 회수 업무를 한다. 이제는 본사의 젊은 직원들조차 불안을 호소한다.

“매년 조직 개편 때마다 본인이 팀 알아서 찾아 가야 합니다. 인사팀? 그들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인사팀은 현장영업으로 내보낼 사람 숫자만 알려줘요. 전 사원의 인사담당화가 됩니다.”



불안심리 조장이 경영진의 유일한 업무 지도력

이 불안심리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경쟁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실적 경쟁하는 KT만의 경쟁문화다.

“통신업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죠.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KT 경영진의 업무 지도력은 모든 게 직원들 불안심리 조장에 의존하고 있지요. 순위 매기고 줄세우고. 그래서 직원들은 경쟁사와의 경쟁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경쟁에 훨씬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로 이런 기업문화 아래서는 편법영업, 허수판매가 정도영업을 압도한다. 그 결과가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주저앉아 버린 기업 실적이다.

줄어든 인건비만큼만 개선된 1분기 영업이익

2015년 1분기 실적발표는 이런 KT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출은 계속 줄어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132억 원으로 전기와 전년동기대비 상승했다지만 이는 인건비와 마케팅비 절약의 결과일 뿐이다. KT는 대량명퇴로 인건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4억 원 줄었고, 마케팅비 또한 670억 원 덜 썼다. 인건비와 마케팅비에서 절약된 돈과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다. 즉 인건비 줄여서 이익이 생긴 것일 뿐 KT의 기업경쟁력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위: 십억원)					
[별도 손익계산서]	1Q14	2Q14	3Q14	4Q14	1Q15
영업수익	4,460.9	4,442.5	4,372.4	4,160.1	4,133.4
서비스수익	3,485.6	3,558.3	3,637.6	3,520.6	3,483.6
무선	1,764.3	1,780.2	1,895.1	1,802.4	1,805.4
유선	1,403.8	1,388.9	1,354.6	1,330.4	1,294.9
미디어	158.6	162.4	170.3	179.8	180.6
금융					
기타서비스	158.9	226.8	217.7	208.0	202.7
상품수익	975.2	884.2	734.8	639.5	649.9
영업비용	4,438.4	5,399.0	4,174.3	4,143.6	3,920.2
서비스비용	3,495.1	4,488.3	3,497.1	3,324.9	3,077.5
인건비	631.1	1,565.8	460.3	467.7	472.7
사업경비	1,588.2	1,635.5	1,708.5	1,818.1	1,654.0
감가상각비	758.0	750.8	758.1	756.5	760.3
지급수수료	328.4	360.1	375.8	406.4	353.4
광고선전비	28.8	35.8	44.8	53.6	34.6
기타사업경비	473.0	488.7	529.8	601.5	505.6
서비스구입비	483.7	515.4	561.0	446.9	467.0
서비스원가	204.3	235.7	259.0	271.0	224.9
접속비용	215.7	222.2	251.1	104.8	181.3
기타서비스원가	63.8	57.4	50.9	71.0	60.8
판매관리비	792.0	771.7	767.4	592.3	483.8
판매비	764.5	747.7	737.9	571.7	463.7
대손상각비	27.5	24.0	29.5	20.5	20.1
상품구입비용	943.4	910.6	677.2	818.7	842.7
영업이익	22.4	-956.5	198.1	16.5	213.2
EBITDA	780.4	-205.7	956.2	773.0	973.6
영업외손익	-28.3	-170.2	-218.5	-337.6	175.3
영업외수익	221.2	146.9	10.3	203.7	366.2
영업외손실	249.5	317.1	228.8	541.3	190.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9	-1,126.7	-20.4	-321.1	388.6
법인세비용	-1.5	-257.0	-17.0	-56.8	99.6
당기순이익	-4.4	-869.7	-3.4	-264.3	289.0

KT의 잃어버린 5년! 이석채 비리경영의 상처 너무도 깊다

물론 KT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근본 원인은 이석채 비리경영에 있다. 그 잃어버린 5년 KT의 매출, 자산, 이익 모두가 줄었다. 부동산을 팔아넘기고 동케이블까지 뽑아 팔았다. 심지어 국가전략 물자인 인공위성마저 정부 몰래 팔아버렸다. 늘어난 게 있다면 부실계열사와 낙하산 인사 그리고 불법 비자금뿐이었다. 비리경영만으로도 회사가 거덜 날 판에 최고경영진은 탈통신을 전략이랍시고 내세웠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회사의 골간인 영업망이 휘청거리는 것이었다.

비리경영에 맞선 새노조와 끝까지 협력한 제1노조



비리경영으로 회사가 백척간두의 위기로 치닫는 순간, KT새노조는 소수노조임에도 과감히 투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 이석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리 경영진 퇴진”을 여론에 호소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인사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 제1노조는 “CEO를 믿는다”며 어용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제1노조가 노조로서의 최소한의 견제 역할만 했어도 KT가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KT위기의 또 다른 축은 어용적인 KT 제1노조라 할 것이다.



구원투수인가, 패전전문 투수인가?

이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등판한 게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다. 구원투수로 큰 기대를 모았던 그에 대해 요즘 현장의 분위기는 패전 처리 전문 투수 아니냐는 비아냥이다. 황 회장이 선택한 혁신은 정확하게 불안심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단기간 실적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안심리 조장이야말로 이석채 추종자들의 주특기 아니던가! 인사, 노사, 감사를 거치며 소위 ‘조직관리자’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포진했던 이석채 비리경영의 추종자들은 또 다시 황 회장 체제 하에서도 이석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조직을 쥐어짖고 이로써 KT 영업망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말았다.

모두가 하루살이인 KT노동자

솔직히 KT에서 영업이든, 기술업무든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투자하는 직원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1년 뒤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KT노동자들에게 자기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장기 관점을 갖고 자기개발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가! 결국 직원들의 불안심리를 업무추진력으로 이용해 온 KT 경영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으로 극복 가능한 게 아니며 장기적 전망을 경영진과 직원들이 공유할 때만 극복될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장기헌신하지!

황창규 회장이 구원투수가 되려면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그게 황 회장 개인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절실한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영진과 직원 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설혹 황 회장이 장기 전망을 제시한다 해도 아무도 이를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하고 업무에 헌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깊어진 상호불신이 지금 KT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불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이석채 비리투쟁의 주역 KT새노조와 황창규 회장이 직접 만나 KT의 장기 전망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만이 직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를 모색하게 만드는 유일한 계기일지 모른다.

황회장, KT새노조와 대화에 직접 나서야

황창규 회장이 KT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KT새노조와의 대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 황 회장이 KT의 미래 전망을 놓고 어용적인 제1노조가 아닌 KT새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럴 때 KT 노동자의 업무 동기가 불안심리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이것이 곧 KT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 이제 곧 2015년 단체교섭이 시작될 시점이다. 이번 단체교섭이야말로 황회장에게는 KT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른다.



MAY DAY(세계 노동절) 참가기

지난 5월 1일은 125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다.

양대 노총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기념집회가 끝나자 5만 여명의 노동자들은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저성과자 해고 완화 저지”를 요구하며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 기세를 몰아 노동절 집회에 총 집결을 선언했었다. 특히 이날 가두 행진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 개악 정책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를 막지 못하면 노동자의 삶은 물론 전 국민의 삶이 파탄날 것이라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평화롭게 진행되던 노동절 시위는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고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와대 인근인 안국동에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찰의 차벽을 밧줄을 끌어내서 유족을 만나러 가려는 시위대와 최루액을 무차별 분무하는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 명의 노동자가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시위 대오는 서울 시내를 돌고 돌아 안국동 사거리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과 결합하였고 “진실을 밝히자, 어둠을 밝히자”는 제목의 문화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문화제에 대해 계속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난사하였고 분노한 유족과 시위대의 저항이 밤새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125주년 세계노동절이 저물어 갔다.






KT새노조와 함께해요!

▷ KT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KT새노조 규약 제5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 ① KT새노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
KT새노조에 보낸다~

 메일 :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② 조합비를 납부한다~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05834 \(KT새노동조합\)](#)

가입 형태	조합비	기타
KT새노조 조합원	4만원/월	기존 KT노조(제1노조)는 탈퇴 처리됩니다.